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말

2013.05.28 | 여경훈 새사연 연구원 | khyeo@saesayon.org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진정 없애고자 하는 정치는 바로 민주주의 자체라는 사실이다. 경제정책이 정치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은 실제 민주주의의 거세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 긴축을 둘러싼 충돌은 예산, 실업, 성장률에 관한 수치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다. 사실 민주주의의 의미에 관한 충돌이다.

지난 4월 IMF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3.3%로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2%p 삭감하였다. 특히 영국의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1월보다 0.3%p 하락한 0.7%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며, 이례적으로 영국의 긴축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IMF 수석 경제학자인 블랑샤는 경제 전망을 묻는 SKY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긴축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영국의 경제정책을 “불장난(playing with fire)”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아래는 영국 가디언(Guardian)에 실린 민주주의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두 개의 칼럼을 소개한다. 하나는 캠브리지 대학 장하준 교수의 칼럼으로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비판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도 한 90세 노병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이다. 그는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희생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복지와 민주주의 가치가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는 현실을 통탄하고 있다. 이 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우 훌륭한 칼럼이다. 칼럼의 핵심 내용만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전쟁이 끝난 후, 우리는 서구 세계를 혁명적으로 바꾸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운동의 자유, 정당한 법의 절차,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보호할 사회안전망 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지 않는 비용은 민주주의의 종말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의 종신형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지 못한 대가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계급(two-tier) 사회로의 회귀임도 알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부의 비축량이 지구상의 모든 강물을 한데 합한 것만큼 방대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정치인과 금융 기관, 그리고 대기업들은 더 이상 인권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건강보험, 연기금, 적정 임금, 노동조합, 그리고 사회안전망과 같은 사치를 누리고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돈이 부족하거나 빚 때문이 아니다. 바로 공동체보다는 장부에 충실한 시티의 은행가나 헤지펀드 관리자가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은 민중이라는 것을 정부가 약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심하라, 오스본 총리

(Watch Out, George Osborne: Smith, Marx, and even the IMF are after you)

2013년 5월 8일

장하준

가디언(the Guardian)

한편 장하준은 최근 영국의 긴축정책에 대한 IMF의 비판을 상기하며, “IMF로부터 긴축정책을 완화하라는 충고를 듣는 것은 스페인 종교 재판관에게서 이단자에게 더욱 관용을 베풀라는 조언을 듣는 것” 과 동일하다고 비판한다. 그만큼 IMF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긴축정책의 교리를 설파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경제에 대한 IMF의 잘못된 처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는 놀라운 발전이다. 과거 30년 동안 IMF는 긴축정책을 전파하는 기수(standard-bearer)였다.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IMF는 당시 재정흑자를 유지하면서 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였던 한국에까지 정부지출을 삭감하라고 강요하였다. 그때는 그 나라의 역사에서 이미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져, 5개월 동안 하루에 100개가 넘는 기업이 파산하던 시기였다. 재정정책이 황당하게도 긴축으로 전환하자, 재정적자는 더욱 심각해졌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사실 IMF는 감사기관인 IEO(Independent Evaluation Office)가 2003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1997년 IMF의 감독 및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IMF의 경제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터무니없는 경제 전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IMF는 1997년에 한국경제의 1998년 성장률이 2.5%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1998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6.7%였다. 9%p에 달하는 성장률 전망의 오류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무능력의 결정판이었다.

하물며 긴축의 신봉자인 IMF도 영국의 경제정책을 수정하라고 충고하는데, 왜 영국 보수당 정부는 작동하지도 않는 기존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그는 바로 정부는 “사실 가난한 사람에 맞서 부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이라는 국부론의 한 구절을 인용한다. 즉 영국과 유럽의 현 경제정책은 부자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가난한 사람이 대신 치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일자리와 복지를 통한 정부 지원을 상실했지만, 위기를 초래한 월스트리트와 시티는 아무 것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우 이질적인 두 경제학자를 인용한다.

혹시라도 당신이 궁금할 수도 있는데, 내가 위에서 인용한 문구는 칼 마르크스가 쓴 것이 아니다. 그는 결코 그렇게 어설프게 쓰지는 않았다. 그는 예의 그렇듯 위풍당당한 어조로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현대의 국가 권력은 전체 부르주아의 공동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에 불과하다. 위에 인용한 정부에 대한 경멸적인 문구는 바로 자유시장경제의 홍보 대사로 알려진, 아담스미스가 쓴 것이다.

정부는 부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서술은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 그리고 국가 권력은 부르주아의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서술은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에 나온다. 자신의 논거를 위해 양극단에 위치한 두 고전 경제학자의 진술을 인용한 그의 기지가 새삼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들이 정부에 대해 거의 동일한 관점을 공유하게 된 데는 바로 당시 정치 제도, 특히 참정권의 성격에서 비롯된다.

스미스와 마르크스에게, 국가의 제급적 편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부자만이 투표를 하던 시대에 살았다. 따라서 부자들이 정부 정책을 지시하는데 거의 견제가 없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성인에게 돌아간 지속적인 참정권 확대에 따라, 국가의 제급적 성격은 상당히 희석되었다. 복지국가, 독점 규제, 소비자 보호, 노동권 보호 등은 바로 정치적 변화 때문에 구축된 것들이다.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 소수 특권만을 위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민주주의다. 부자의 편에 선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에, 자유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시장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보통선거를 강렬히 반대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의 생산수단을 전용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정치인을 선출할 것이기 때문에, 부를 만들 인센티브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단 보통선거가 도입된 이후, 그들은 공개적으로 민주주의를 반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 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정치인은 재선의 기회를 극대화하지만, 경제를 망가뜨리는 - 돈을 뿌리고, 독점 세력에 호의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지출을 증가시키는 -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정치인들이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를 혐오하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충고에 따라, 1980년대 이후 경제정책에서 정치를 배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바로 독립적 중앙은행, 독립적 규제당국, 엄격한 재정지출 규칙 등이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 감독에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국가재정법을 통해 재정지출의 규율을 강화하는 등 IMF의 교리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한편에서 한국의 보수는 시장을 옹호하고, 다른 한편에서 진보는 정부를 비판하며 모두 IMF 교리의 충실한 전파자가 되었다.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임에도 '개혁', '선진화' 등으로 포장되어 일사천리로 IMF체제가 만들어졌다.

다행히 지난 해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민적 열망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융합' 과 '창조경제' 라는 신조어를 통해 금융, 산업, 그리고 미디어 분야 등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올바른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진정 없애고자 하는 정치는 바로 민주주의 자체라는 사실이다. 그들이 경제정책은 정치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할 때, 그들은 실제 민주주의의 거세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 긴축을 둘러싼 충돌은 예산, 실업, 성장률에 관한 수치에 관한 것뿐이 아니다. 사실 민주주의의 의미에 관한 충돌이다. ...영국의 총리를 포함하여 유럽의 리더들이 정치적, 사회적 지지의 한도를 넘어서 긴축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이 질문할 것이다. 정부 정책이 최상위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복무할 때 과연 민주주의의 요지는 무엇인가? 바로 유럽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3/may/08/osborne-marx-imf-austerity-democracy>

http://www.newleftproject.org/index.php/site/article_comments/is_this_what_we_fought_for

2013년 새사연의 '세계의 시선' 목록

2013년 5월 27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세계의 시선	1/11	세계 경제 침체에 가려져 놓쳐서는 안 될 문제들	이수연
세계의 시선	1/28	금융위기와 가계부채, 그리고 신용 협동조합	김병권
세계의 시선	1/25	경제위기와 보건의료정책, 그리고 건강	이은경
세계의 시선	1/27	루비니 교수가 말하는 2013년 경제의 5대 위험	김병권
세계의 시선	2/1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공정한 성장을 위한 길	김수현
세계의 시선	2/12	소득 불평등에 대한 미국 보수의 반격?	여경훈
세계의 시선	2/14	세계적 불황에 누가 가장 취약한가?	최정은
세계의 시선	2/19	주민들의 건물 공동소유로 높은 임대료 극복하기	이수연
세계의 시선	3/9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가 평가하는 차베스	김병권
세계의 시선	3/12	단기 자본 수익에서 벗어나는 것이 창조경제	이수연
세계의 시선	3/21	싱가포르가 저출산에 대처하는 방법	최정은
세계의 시선	3/26	EU,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나서	김수현
세계의 시선	3/29	뱅크런과 구제금융 ABC	여경훈
세계의 시선	4/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백년만의 영국 연금개혁	이은경
세계의 시선	4/9	영국 아빠들이 '출산휴가' 를 거부하는 이유	최정은
세계의 시선	4/16	아베가 쏘아 올린 세 가지 화살	여경훈
세계의 시선	4/23	고용 회복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정책 필요	김수현
세계의 시선	4/30	자신의 국민과 싸운 '철의 여인' 대처	김병권
세계의 시선	5/7	재정 긴축을 놓고 충돌하는 세계	이수연
세계의 시선	5/14	'복지 여왕' 의 신화에서 벗어나라	이은경
세계의 시선	5/21	일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경험의 시사점	최정은
세계의 시선	5/24	규제가 없다면 선한 자본도 없다. 애플도, 구글도.	김병권
세계의 시선	5/28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말	여경훈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